



2024. 01. 09.



차례

1. 조직도
2. 협의회 활동
3. 에세이
4. 인터뷰
 - 군서미래국제학교 이용규 교장선생님
 -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 사서 김한상 선생님
5. 회원동정
6. 전국 러시아 관련 교과, 학과개설 현황
7. 공지사항

1. 조직도

| | |
|-------|---|
| 회장 | 김진규 고려대, 박소윤 서연고 |
| 부회장 | 남혜현 연세대, 임미은 선일중 |
| 총무 | 김한나 봉명초, 정영주 경상국립대 |
| 분과위원장 | 이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현진 속초고 |
| 감사 | 이호림 청주외고 |
| 고문 | 김성일 한국노어노문학회장, 청주대 정세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양대 한만춘 한국슬라브어학회, 상명대 김용화 충북대, 박종소 서울대, 심성보 건국대 유학수 선문대, 전해진 중앙대, 함영준 단국대 드에드워드 계명대 |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는 2023년 8월 국세청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나은행 391-910032-69304 예금주: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2. 협의회 활동

2023년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참석



협의회 회장단은 2023년 10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2023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격변의 러시아·유라시아와 한국』 통합분과(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 일정 | 발표 및 내용 | 비고 |
|---------------------------------|---|---------------------------------------|
| 통합분과 (라운드테이블) 17:00~17:50 | 발표주제: 교육 현장에서의 러시아학의 미래 토론자 : 김진규(고려대, 협의회 회장) 장진실(동신대, 협의회 회원) 김한나(봉명초, 협의회 총무) 임미은(선일중, 협의회 부회장) 박소윤(서연고, 협의회 회장) | 사회: 전혜진 한국노어노문학회장 (중앙대, 협의회 고문) |

2. 협의회 활동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협의회는 (사)한러대화의 후원을 받아 2023년 11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차와 2차에 모두 참석한 10명의 예비 러시아어 교사가 수료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1) 일시 및 장소 : (1차) 2023. 11. 11.(토) 10:00~15:00 선일중학교 (경기도 안산시)
(2차) 2023. 11. 18.(토) 14:00~19:00 서연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 2) 강사 : 임미은 협의회 부회장(안산 선일중 교사, 한국어교육 석사, 다문화교육 박사 수료)
박소윤 협의회 회장(화성 서연고 교사, EBS 러시아어 대표 강사, 교과서 집필 위원)
- 3) 이수자 : 강민지(연세대), 권누리(중앙대 졸업), 김수지(충북대), 김은설(중앙대), 박정민(조선대),
박정은(중앙대), 송은혜(경상국립대), 송하영(경희대), 윤민주(부산외국어대), 이민정(연세대)



(왼쪽 위에서부터)

- ✓ 2차 서연고 멘토링
- ✓ 1차 선일중 특강 후 안산 고려인 마을 탐방
- ✓ 수료증 수여



3. 에세이

김수지(충북대학교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재학 중인 김수지입니다. 저는 2023년 11월 11일, 18일 진행된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하여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생실습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외국어인 러시아어를 흥미롭게 가르치는 방법, 교탁 위에서의 마음가짐과 충분한 배경지식 모두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담당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이 끝나자마자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듣고,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음 학기 실습에는 더 새로운 마음가짐과 발전한 모습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점]



이 프로그램 구성의 모든 것이 제게 흥미로웠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두 가지는 서연고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받은 것과 안산 고령인 마을을 탐방한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사소하게 생각하여 짚지 못한 부분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모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업 준비를 할 때 '굳이 이것까지 넣어야 할까?' 싶었던 것을 학생들은 궁금해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수업 시연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현장 교사의 피드백만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놓친 부분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러시아어 교사가 된다면 결국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게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예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업 준비에 있어 더욱 깊게 파고들어 학생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학 중인 대학교가 위치한 청주에도 안산처럼 러시아어권 이주민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주는 비교적 늦게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최근 환경, 교육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려인 마을에 방문했을 때 두 지역을 비교해 가며 주위를 살피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쓸쓸하게 혼자 안산에 방문해서 고려인 마을을 구경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킬링이라는 학생의 안내하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가 세워져 있고 다문화학교 시스템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체제 발전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 바라는 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확대된다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러시아어권 이주민 밀집 구역을 탐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러시아어권 학생들의 학습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대학생들이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멘토링 수업이었기에 더 이상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3. 에세이

박정은(중앙대 러시아어문학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전공 20학번 박정은입니다. 저는 교직 이수를 하면서 막연히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교직 전공수업을 들으면서도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을 접하게 되었고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점]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내의 러시아어권 이주 배경 학생의 비중이었습니다. 저는 교직 이수를 시작하며 러시아어에 관심을 가진 한국인을 위한 교사를 상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고려인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일중에 방문하여 러시아어권 학생의 비중이 한 반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학급에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학생이 더 많은 경우가 있으며,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가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처음 교내로 들어갔을 때, 현관문 앞에 내용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붙어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오히려 주변의 러시아어권 학생들끼리 지내면서 한국어를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어린 나이에 적절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환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내가 러시아어와 관련된 직업을 매우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러시아어를 통해 저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동시에 고려인을 포함한 많은 주변에도 도움이 될 기회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일중학교에서의 고려인 학생들과의 소통과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은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게 된 계기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고에서의 수업 시연 또한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를 정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수업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피드백을 들으며 학생들이 정말 집중하여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연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단순히 제 경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참여했다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주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번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어 교육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교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를 벗어나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러시아어를 배우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에세이

이민정(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점]

저는 전 교육 과정 해외이수자로 러시아에서 자랐고 러시아 현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항상 교사의 직업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어노문학과로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그 꿈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학교의 분위기를 잘 모르고, 게다가 러시아어 교사라는 직책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거라고는 러시아어뿐이기에 교직과정에는 지원을 하여 이수 중이었으나, 후회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수업 등으로 인해 그만둘지 고민을 하던 차에 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에 와보니 첫날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의 자리가 생겨 좋았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흥미와 재미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수업을 직접 해보는 날에는 많이 떨렸지만, 제가 왜 교사를 꿈꾸곤 적이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교탁에서 있는 저의 모습이 좋았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예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금 교사의 꿈을 좇자는 결심했습니다. 사실 교사를 꿈꿀 때에도 막연하기만 하고 두려웠는데, 이번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에 교육실습에 나가기 전에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좋았고, 선배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 바라는 점]

이번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노어노문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아직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노어노문학과 학우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교직과정 프로그램에는 미흡한 것이 많고 러시아권 국가에서 살다 와 러시아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는 러시아어 실력이 퇴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은 많지만, 재외국민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서 논의 후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어노문학과 학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인터뷰

군서미래국제학교 이용규 교장 선생님



인터뷰 진행자

윤정운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교 러시아어교사

군서미래국제학교는 2021년에 개교한 대안학교로, 전국 최초 무학년 학점제 초·중·고 통합학교입니다. 경기미래학교의 국제학교 모델로 설립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특화학교이자 경기도 최초의 초중고 통합형 공립 대안학교인 만큼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이 어우러져 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러시아어 수업이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에 대해 군서미래국제학교 이용규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러시아어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다문화교육과 미래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언어교육은 한국학생과 외국학생의 소통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한국 학생들에게는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인 중국어, 러시아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공용어로서 영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교육은 교실에서 프로젝트 수업, 토론수업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학생 상호 간 및 학생-교사 간 소통이 언어의 장벽으로 방해가 되는 것을 막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초등단계에서부터 중국어, 러시아어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얻는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권 출신 외국인, 동포들의 거주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지역적 배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습득함으로써 러시아문화권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을에서 만나는 러시아문화권 학생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한국학생들이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화를 배우며 러시아어권 학생들과도 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뷰

3.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는 러시아어(언어) 수업뿐 아니라 러시아 관련 다양한 교양수업도 개설됩니다.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과 그 차이가 학생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로, 단순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의,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교육에서도 단순한 언어교육이 아니라 러시아문화와 관련된 교과를 개설하여, 한국 또는 러시아 이외의 학생들이 러시아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학생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 학생들이 한국문화 이외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군서미래국제학교의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혹시 학교에 다니는 러시아어권(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등) 학생 또는 학부모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들을 대하는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군서미래국제학교의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지만, 러시아어권 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합니다. 많은 학생, 학부모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보다 학생의 교육에 덜 적극적이며,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관련 상담을 해 보면, 한국에서의 생활, 자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의 경우,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교에 근무하는 러시아어

원어민교사, 또는 인근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교에 다니고 있는 러시아어권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도가 처음 입학할 때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우리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확신이 듭니다.

5. 마지막으로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가 창립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어는 아직 한국에서 낮은 언어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제2외국어 교과로 러시아어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 교원을 받지 못하고 계약제 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러시아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러시아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한국 학생들이 보다 쉽게 러시아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활동에 군서미래국제학교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어 관련 교과 교육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과의 개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 사서 김한상 선생님

1. 러시아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김한상입니다. 러시아센터는 러시아 정부 재단 『루스키 미르』의 후원을 받아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센터는 러시아의 역사,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러시아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센터를 들르시는 분들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러시아센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러시아센터의 주요 활동을 안내해 주세요.

1) 무료 러시아어 강의와 러시아 문화 특별 강연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는 러시아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러시아에 관심이 있지만 러시아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무료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초 단계의 러시아어 문법부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러시아어 회화까지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러시아센터에서는 러시아 문화 및 사회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을 매달 실시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그젤(гжель), 루복(лубок) 등 러시아의 민속 공예품(народные промыслы)을 매달 소개하였고, 2023년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지나는 주요 거점 도시들(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역사와 주요 명소를 소개하였어요.

러시아센터에서는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서 초청 강연을 실시하기도 해요. 올해에는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인 류드밀라 울리츠키야 탄생 80주년을 맞아 류드밀라 울리츠키야의 『거대한 초록 천막』을 번역하신 승주연 선생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하였어요. 승주연 선생님께서는 류드밀라 울리츠키야의 생애와 『거대한 초록 천막』의 내용 등을 소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대문학 전반과 문학 번역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주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러시아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유익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2) 학생들을 위한 자치 공간

또한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는 노어노문학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연극연구회나 전래동화를 번역하여 고려인 동포들에게 나눠주는 봉사 활동 동아리인 카란다쉬(Карандаши) 활동도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동유럽의 역사, 문화와 동유럽 내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유럽 경제학회 활동도 진행하였고, 각 분야(외교, 무역, 번역, 법률 등)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이 노어노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도 러시아센터에서 진행되었어요. 한-러 관계가 냉각되면서 노문과 졸업 이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3.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무엇인가요?



올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UCC 행사예요.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는 매년 러시아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의 러시아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생활러시아어 UCC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네(Умом Россию не понять)」라는 시로 유명한 대문호 추체프(Фёдор Иванович Тютчев) 탄생 220주년이자 서거

150주년을 맞아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особенная статья России)에 대해서 4개 학교 32명 학생이 팀을 짜서 아이디어를 내서 영상을 제출해 주었어요.

각 학생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마슬레니차 등 러시아의 전통 명절, 율리우스력에 따른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1월 7일)과 러시아의 고유한 유라시아적 기질 등을 영상을 통해서 표현해 주었어요. 또한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시상식이 진행되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4. 러시아센터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껴요. 지금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렵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오랜 이웃이고,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줌 화상강의 플랫폼 등을 통해서 러시아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러시아어 강의를 제공하고, 더욱 다양한 러시아어 수업, 러시아어 행사를 개최하여 러시아센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5. 회원 동정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전공 가을문화제]

11월 7일.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전공 원어연극 동아리 브메스제 연극 『운명의 아이러니』와 원어노래 동아리 아이울리 공연 『나 홀로 모스크바에』. 중앙대학교 310 소극장.



5. 회원 동정

[오동건 회원 아산시장 표창패 수상]

오동건 회원(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 글로벌교육지원팀)은 러시아어 능력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힘써 왔으며, 특히 외국인 주민이 아산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2023년 12월 1일 아산시장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충북대 러시아어문화학과, 봉명초등학교 다문화 재학생 학습활동 지원]

충북대 러시아어문화학과 재학생들은 매학기 인근에 위치한 봉명초등학교 러시아어 구사 다문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내용과 설명을 통역하거나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합니다.



[서연고 러시아어 다문화멘토링 대표단 상호문화교류활동]

서연고 러시아어 다문화멘토링 대표단 학생 30명은 2023년 12월 26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이언 국제 상호다문화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6. 전국 러시아 관련 교과·학과 개설 현황

[전국 중·고등학교 러시아어 개설 현황]

2024년 1월 2일 현재

군서미래학교, 대구국제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묵호고등학교, 북평고등학교, 북평여자고등학교, 서연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선일중학교, 속초고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총15개교 교사22명**

[전국 대학 러시아어 관련 학과 및 전공]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러시아문학전공, 전문통역학과 한러전공),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러시아-CIS과, 한노과),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총25개 대학, 28개 학과**

7. 공지 사항

회원명단 (2024년 1월 1일 현재)

강민지, 강수경, 강철, 권누리, 권미선, 김미원, 김민아, 김보라, 김상원, 김상현, 김선안, 김성일, 김소령, 김수지, 김용화, 김자영, 김정희, 김준석, 김진규, 김태연, 김태옥, 김한나, 김한상, 김형섭, 나리나, 남혜현, 드 에드워드, 말체바 나데즈다, 박선진, 박소윤, 박정민, 박정은, 박종소, 박진희, 박현아, 박혜경, 손현익, 송선희, 송정수, 송주연, 심나탈리아, 심성보, 아지모바 나시바, 안혁, 오동건, 용금주, 유정화, 유학수, 윤정윤, 이경완, 이기주, 이명현, 이민정, 이영준, 이종현, 이주홍, 이지은, 이호림, 임나탈리아, 임미은, 임은성, 잔나 발로드, 장디아나, 장주창, 장진실, 전해진, 정경민, 정명자, 정세빈, 정세진, 정영순, 정영주, 정유리, 정하경, 정현진, 정혜린, 제성훈, 조다인, 차상경, 최문정, 최수현, 최정환, 최진희, 최하나, 추나레바 안나, 파치나 베로니카, 피사레바 라리사, 한만춘, 한지형, 함영준, 허성태, 허운경, 호로호르디나 올가, 홍서연

연회비(2023.07~2024.06) 내신 분

김태옥, 김한나, 나시바 아지모바, 박선진, 박혜경, 송선희, 오동건, 이경완, 이지은, 이호림, 정영주, 정현진, 정혜린, 한지형, 홍서연

특별회비 내신 분

김진규 남혜현 박소윤 임미은 (각 30만원)

기관회비 내신 분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각 30만 원)

회비 납부 안내

정회원 연회비 3만원 (대학의 러시아어 관련 강의·연구 종사자, 초·중·고교의 러시아 관련 교강사)

준회원 연회비 1만원 (러시아어 관련 학부 및 대학원생, 관심 있는 일반인)

기관회원 평생회비 30만원

하나은행 391-910032-69304 예금주: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소식은 홈페이지(www.katpr.or.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pr23)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katpr@naver.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